



동아에스티, 10억 규모 성장호르문제 기증

동아에스티는 지난 27일 서울 본사에서 '2026년 성장호르문제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동아에스티는 한마음사회복지재단을 통해 10억 규모의 성장호르문제를 지원한다. 정재훈 동아에스티 대표(왼쪽)와 노희식 한마음사회복지재단 설립자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아에스티



남부발전, 장애인 인턴 확대... 지속가능 고용 모색

한국남부발전이 지난 27일 본사 비전룸에서 부산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인턴 고용 확대와 지속가능한 고용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남부발전 박영철 경영기획부사장(가운데), 장애인고용공단 김대규 부산지역본부장(왼쪽), 부산광역시 정태기 사회복지국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남부발전



동서발전, 제주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너지 효율화

한국동서발전 제주사업추진단은 제주시, 동북주간활동센터와 지난 27일 제주시청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동서발전 김용기 제주사업추진단장(왼쪽 첫번째), 제주시 현원동 부시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서발전



한국투자증권, 서강대 '한투 캠퍼스 투어' 성료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5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대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금융·커리어 교육 프로그램 '한투 캠퍼스 투어'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퀀트 투자 전략 등 실무적인 금융 교육과 함께, 증권업 직무 소개 및 현직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커리어 설계를 지원했다. /한국투자증권



근로복지공단, 산재 근로자 가족 프로그램 확대

근로복지공단은 29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함께 '산재 근로자 가족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프로그램은 가족 화합, 가족 공감을 주제로 구성됐다.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산재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가족 간 소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근로복지공단

이재현, 명동 올리브영 찾았다... '글로벌 성공 공식' 점검

(CJ그룹 회장)

미국 진출 앞두고 현장경영 분주
글로벌 K-뷰티 생태계 구축 주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공식 오픈을 앞둔 명동의 올리브영 매장을 직접 찾았다. 상반기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둔 시점에서 K뷰티의 '글로벌 성공 공식'을 현장에서 최종 점검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지난 26일 오전 CJ올리브영 '올리브영 센트럴 명동 타운'에는 이례적인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회장을 필두로 이선정 올리브영 대표, 이선호 미래기획그룹장 등 핵심 경영진이 동행했다. 이 회장의 동선은 실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흐름과 동일하게 구성됐다. 글로벌 Z세대가 물리는 색조 구역을 시작으로 식품·건강식품 등, 건강 간식 브랜드 '달라이트 프로젝트', 마스크팩과 선풍기 중심의 스킨케어 매대, 그리고 전국 최대 규모 수준의 1층 유인 계산대까지 꼼꼼히 살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그룹의 주요 경영진과 함께 26일 새롭게 문을 연 '올리브영 센트럴 명동 타운'을 살펴보고 있다. /CJ그룹

명동 상권은 올리브영에 있어 글로벌 소비자 반응을 가장 빠르게 읽을 수 있는 테스트베드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88개국 국적의 외국인 고객이 이 일대 매장을 찾았고, 구매의 약 95%가 외국인 고객에게서 발생한다. 올리브영은 2012년 이 자리에 플래그십 매장을 선보인 이후 10년 넘게 글로벌 관광 상권 운영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이번 '센트럴 명동 타운'은 그 전략을 집대성한 공간이다. 이곳에서 검증된 운영 방식과 고객 경험 설계는 올 상반기 문을 열 미국 패서디나 1호점에도 그대로 이식될 예정이다.

현장에서 이 회장의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문 공간은 3층 '마스크라이브 러리'였다. 일반 매장 대비 마스크팩 진열을 3배 이상 확대한 특화 존으

로, 100여 개 브랜드를 도서관처럼 구성해 '발견형 쇼핑(Discovery Shopping)' 경험을 극대화했다. 시트팩 중심이던 시장에서 토너팩, 팩클렌저 등으로 카테고리를 확장하며 인디 브랜드의 성장을 이끌고, 이를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브랜드로 육성하는 구조에 주목한 것이다. 이 회장은 "미국 시장에서도 이 같은 지속 가능한 K뷰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CJ 관계자는 "이번 현장경영은 CJ그룹의 글로벌 확장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보"라며 "그동안 CJ ENM이 K콘텐츠로, CJ제일제당이 K푸드로 해외 시장을 넓혀왔다면, 앞으로는 CJ올리브영의 K뷰티·웰니스 경쟁력을 더해 '글로벌 K라이프스타일 그룹'으로서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 동반성장 교향곡 연주... "파트너사 협력 강화"

'롯데 행복나눔 동행콘서트' 성료
노준형 롯데지주 대표이사 등 참여

롯데가 지난 27일 롯데콘서트홀에서 파트너사 임직원을 초청해 '2026 롯데 행복나눔 동행콘서트'를 개최했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한 이번 동행콘서트에는 340여 개 파트너사 임직원 1300여 명이 참석했고, 롯데지주, 롯데백화점, 롯데GRS, 롯데건설 등 12개 계열사 임직원도 함께했다.

이번 행사의 테마는 '심포니 오브 롯데(Symphony of LOTTE)'로, 롯데와 파트너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하나의 동반성장 교향곡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공연도 클래식, 대중음악, 팝페라가 결합된 크로스오



롯데는 27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파트너사 1300여 명을 초청해 '2026 롯데 행복나눔 동행콘서트'를 개최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왼쪽에서 두번째), 노준형 롯데지주 대표이사(왼쪽에서 세번째),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등 주요 참석자들이 동반성장 의지를 다지는 세리머니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그룹

버 무대로 꾸며졌다. 디토 오케스트라와 김광현 지휘자가 클래식 공연을 선보였으며, 바이올리니스트 대니구와 가수 박기영이 영화 OST 등 친숙

한 곡으로 공감대를 이끌었다. 이어 가수 유채훈이 웅장한 크로스오버 무대를 선보였다.

이날 본 공연에 앞서 롯데와 파트

너서는 동반 성장 의지를 확인하는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노준형 롯데지주 대표이사,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 김주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파트너사를 대표해 이영석 태진자산관리 대표, 송승혁 ㈜벼라 대표 등이 무대에 올라 동반성장 문구를 작성했다.

동행콘서트에 참가한 윤명훈 이노시큐리티 대표는 "롯데와 함께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파트너사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롯데 관계자는 "파트너사는 그룹의 성장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라며 "파트너사와 협력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광해공업공, '광산안전교육관' 건립 추진 고려대, 서울지역 '모두의 창업' 운영

내달 광산안전센터 내 신축 공사

한국광해공업공단은 29일 광산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 '광산안전교육관'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국내 광산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오는 4월부터 태백시 소재 광산안전센터 부지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약 250평 규모의 교육관 신축공사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교육시설의 한계를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과 체계적인 훈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총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7년 1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특히 새롭게 건립되는 교육관에는 실제 광산 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한 가상현실(VR)과 확장현실(X



광산안전교육관 조감도. /광해공업공단

R) 등 첨단 장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반의 체험형 안전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스마트 광산안전교육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종만공단광산안전처장은 "광산안전교육관은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국내 광업계의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거점이 될 것"이라며 "체험 중심의 실무형 교육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고려대학교는 크립스창업지원단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창업진흥원이 전담하는 창업 지원 사업 '모두의 창업'의 서울지역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모두의 창업'은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 창업에 도전하고 제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운영기관의 보육과 국가 주도 경영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려대는 전 분야 창업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한편 AI, 바이오·헬스케어, 양자컴퓨팅, 첨단소재, 로봇공

학, 반도체 등 다테크 분야를 특화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려대 교수진과 전문가로 구성된 'KU Tech 자문단'과 '기술혁신형 전문멘토단'을 통해 기술 멘토링을 제공한다.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한 멘토단도 운영한다. 블리스바인벤처스 환경진 대표를 포함한 30인의 책임멘토단이 아이디어 평가 단계부터 최종 오디션까지 전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고려대는 기술성과 시장성을 함께 검증하는 실전형 창업 지원도 추진한다.

/이현진 기자 hj@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성공관리정책관 양지연 △교육문화성평등정책관 최진영 △미세먼지

선거기획단 부단장 김명신 △청년정책협력관 방진아 △농림국도해양정책관 박영두 △개발협력지원국장 김종진 △민정인원비서관 이용주 △디지털소통비서관 이순아